

고기를 굽는 그 시간

요즘 나는 아침 8시부터 고기를 굽는다. 일하던 사람들이 나간 후로 나와 내 아내가 오전 9시 30분에 가게 문을 열어야하기 때문이다. 닭고기를 미리 굽지 않으면 손님을 맞을 수 없어서이다. 그래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렇게 하기를 거의 오전 11시까지 점심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한다. 끝이 없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침 8시에 고기를 굽는 동안에는 아무의 간섭 받지 않고 일한다. 그 시간이 나에게서 참 좋은 시간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또한 나에게서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다. 나 혼자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날에는 그 한 시간 동안 분한 생각만 때도 있었다. 지나갔지만 좋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온갖 후회와 낙심이 생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때에는 참으로 힘이 들고 내가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날에는 그 시간동안 지금의 생활을 돌아보는 날도 있었고 다른 날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는 날들과 함께 어떤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임하는 때도 많았다. 그런 날에는 나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며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생활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내 스스로 보게 되었다.

하루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보낼 것인가? 후회와 낙심을 불러 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당연히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하기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고 비전의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씨름을 하는 동안 닭고기는 다 구워졌고 손님들은 정시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하루의 생활은 늘 같지만 매일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깨닫고 이해하며 넘고 넘어가는 믿음의 고개를 경험하며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왕 갈 길이라면 또한 닭고기를 구워야한다면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송이 있다. “내 고기를 굽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귀하다...”라는 간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달아간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신다. 무슨 일을 했느냐 보다 하루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믿음으로 임했느냐?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엇을 하든지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를 위한 사역의 길이고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다.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고 그 모든 날들이 더해져 각자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